

제60호
과천돌보기 사용설명서

과천 교통 탐구 생활



과천 교통 일반 현황

- 2025년 등록자동차 33,400대로 2016년 대비 +49.4% 증가했으나, 2024년(35,041대) 대비로는 -4.7% 감소
- 승용차 비중은 85.8%(2016년)→90.1%(2025년)으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

과천시 등록자동차 수는 2016년 22,351대에서 2024년 35,041대까지 201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해왔으나, 2025년에는 33,400대로 전년대비 1,641대(-4.7%) 감소하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. 이러한 등록 차량 감소는 같은 기간 과천시 주민등록인구 감소(-5,604명)와 맞물려, 전출 가구가 보유 차량도 함께 이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. 승용차 역시 2024년 31,699대에서 2025년 30,103대로 1,596대(-5.0%) 줄었다. 반면 승용차의 비중 자체는 2016년 85.8%에서 2025년 90.1%로 올라, 차량 수 감소에도 승용차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.

이륜차 신고 현황은 유형별로 뚜렷이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. 소형은 2021년 295대에서 2025년 333대로 12.9% 늘었고, 대형은 187대에서 264대로 41.2% 증가해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. 반면 가장 많은 중형은 672대에서 647대로 소폭 감소(-3.7%)하였으며, 경형은 108대에서 78대로 큰 감소세(-27.8%)를 나타냈다.

2023년 기준 과천시의 주차장은 총 47,296면으로, 부설-일반이 21,878면(46.3%)으로 가장 많았고 부설-주택가(공동주택) 20,809면(44.0%), 공영-노상 2,462면(5.2%), 공영-노외 2,147면(4.5%) 순이었다.



과천시의 통행 특성

- 과천대로(문원동앞) 구간이 상행 91,764대·하행 85,059대로 교통량 1위
- 통근수단 중 승용차 비중은 2021년 30%→2025년 37%로 상승

2023년 과천시 도로별 연평균 일교통량을 보면 과천대로(문원동앞) 구간이 상행 91,764대(전년대비 +6.8%)·하행 85,059대(-3.3%)로 7개 조사지점 중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. 교통량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앙로(과천성당) 구간으로 상행 +8.8%·하행 +8.3%를 기록했다. 반면에 과천대로(남태령) 구간은 상행 -12.9%·하행 -8.4%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여, 서울(사당) 방향 통행은 줄고 시내 중심부 통행은 늘어나는 대조적인 양상이 나타났다.

통근·통학 수단 분담률(편도)을 보면 과천시는 승용차 비중이 2021년 30%에서 2025년 37%로 7%p 상승한 반면, 전철·지하철 비중은 36%에서 29%로 7%p 하락해 역전 현상이 뚜렷하다. 그러나 같은 기간 경기도와 비교했을 때, 승용차 비중은 경기도 평균보다 13~14%p 낮아 과천시의 대중교통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.

통근·통학 평균 소요시간은 45.1분으로 경기도 평균(39.3분)보다 5.8분 길었다. 지역별로 서울 방향 53.7분, 경기도 타 시군 방향 47.1분, 인천 방향 71.4분이 소요되어, 인천으로의 통근·통학이 가장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과천시 속 대중교통

- 2025년 대중교통 이용량 48,454,326통행으로 2021년(31,621,206통행) 대비 5년간 +53.2%
- 이용수단은 도시철도가 52.4%로 절반 이상, 이용자의 76.4%는 일반인

과천시 대중교통 이용량(발생량+도착량)은 2021년 31,621,206통행에서 2025년 48,454,326통행으로 5년간 53.2% 증가했다. 특히 2021→2022년 사이 증가폭(약 27.7%)이 가장 컸고, 이후에도 매년 꾸준히 늘어 2025년에도 전년대비 3.3% 증가했다. 2025년 교통수단별 이용량 구성비를 보면 도시철도가 25,368,553통행(52.4%)으로 절반을 넘었고, 시내버스 16,911,211통행(34.9%), 마을버스 4,382,918통행(9%), 광역버스 1,791,644통행(3.7%) 순이었다. 이용자유형별로는 일반인이 37,023,760통행(76.4%)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, 경로 7,643,593통행(15.8%), 청소년 2,024,011통행(4.2%), 어린이 698,182통행(1.4%), 그 외 1,064,780통행(2.2%)이었다.

이용자유형별 평균 이동시간(2026년 9월 기준)은 전체 평균 36분으로, 일반인이 39분으로 가장 길었고 경로 29분, 어린이·청소년이 각 23분이었다. 평균 이동거리는 전체 13km로, 일반인 14km·경로 11km·어린이와 청소년이 각 8km였다. 이용자 유형별 평균 이동시간과 거리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반인은 고령층·어린이·청소년보다 이동시간과 거리가 모두 길게 나타나, 이용자 유형에 따라 대중교통 이동 양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.



버스 or 지하철?

- 버스 최다이용노선은 540번(2026년 9월, 481,226건)으로 2위 441번(401,623건)와 큰 격차 양상
- 지하철역 중 정부과천청사역만 유일하게 일평균 수송량이 증가(16,764명→18,490명, +10.3%)

2026년 9월 기준 버스 최다이용노선은 540번으로 481,226건을 기록해 2위 441번(401,623건)을 8만 건 가까이 앞질렀다. 이어 11-3번(381,361건)·502번(369,961건)·1번(85,576건) 순이었는데, 1번 노선은 상위 4개 노선과 격차가 매우 커 노선별 이용 쏠림이 뚜렷했다. 지하철역 일평균 수송량(2024년 대비 2025년)에서는 흥미로운 역전이 발견된다. 정부과천청사역은 16,764명에서 18,490명으로 10.3% 증가했으나, 과천역(9,875→8,800명, -10.9%)·경마공원역(8,891→8,479명, -4.6%)·대공원역(7,378→6,984명, -5.3%)·선바위역(11,668→11,537명, -1.1%)은 모두 감소했다.

추석 연휴 대중교통 수단 분담률(2026. 9. 25~10. 1)을 보면 뚜렷한 패턴 차이가 나타난다. 추석 당일(9. 25)과 주말(9. 26~27)에는 도시철도 비중이 55~62%까지 치솟고 시내버스 비중은 28%~34%로 낮아졌다. 연휴가 끝난 평일(9. 28~10. 1)에는 도시철도 46~47%·시내버스 40%·마을버스 10~11%로 비교적 안정적인 평시 패턴을 회복했다. 이는 추석 연휴에는 도시철도의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반면, 일상적인 이동에서 버스 역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.



과천시 교통 만족도?

- 과천 교통문화지수 순위 2022년 8위(인구30만미만 49개시 중)로 최고치 기록 후 2023년 10위로 소폭 하락
- 대중교통(지하철) 만족도는 과천 67%로 경기도 평균(50%)을 크게 상회, 버스 최대 불만은 '배차간격이 길다'

과천시 교통문화지수 순위는 2019년 20위(79.94점)에서 2020년 37위(76.35점)까지 떨어졌다가, 2021년 23위(80.35점)·2022년 8위(84.46점)로 빠르게 회복해 조사 기간 중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. 2023년에 10위(83.7점)로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49개 시 중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.

2025년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과천시는 지하철·경전철에 대해 '만족한다'는 응답이 67%로, 경기도 평균 50%를 17%p 상회했다. 시내/마을버스와 시외/고속버스 역시 경기도(각 38%, 23%)보다 과천(각 49%, 31%)이 더 높았다. 버스 이용 만족 이유로는 시내/마을버스의 경우 '정류소 버스도착 정보'(39%)가, 시외/고속버스는 '버스 이용 환경(차량, 정류소)'(34%)이 1위를 차지했다. 반면, 버스 이용 시 개선사항으로는 시내/마을버스(34%)·시외/고속버스(30%) 모두 '배차간격이 길다'가 공통 1위로 꼽혀, 노선·배차 확충이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과제로 확인된다.

과천돌보기 제60호는 [출처]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으며, 원 자료에서 제시된 구분 항목을 준용하였습니다.

[출처]

- KOSIS 자동차등록대수현황 시도별
- KOSIS 이륜차신고현황 시도별
- 한국철도>광역수송>수송통계
- 교통카드 빅데이터통합 정보시스템
- 2023 과천시 교통백서
- 2025 과천시 사회조사